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5년 4월 27일
(월요일)

강북신문 5면

◆강북구의회 5분 자유발언

“관내 불법광고물 근절방안 마련 시행하길”

유인애 의원, 불법현수막·불법전단지 폐해 지적하며 시정 요구

유인애 의원(수유2,3동 번1,2동)은 지난 20일 열린 제1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불법광고물 근절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펼쳤다.

유 의원은 먼저 불법현수막의 경우 “경관을 해치고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보행인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라며 불법현수막이 난무하고 근절되지 않는 것은 담당부서의 책임감 부재에서 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이어 유 의원은 “올바른 옥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계도활동과 더불어 주말 등 사각시간대에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광고물을 근절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해 2만5,220건을 정비하고 287건에 대해 총 7,76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던 2014년도 현수막 정비실태를 밝히기도 했다.

이어 유 의원은 공공용 현수막의 경우



지난해 7,500여만원의 예산을 쓰고 문화체육과의 경우 무려 228대를 제작하는 등 구에서는 1일 약 3.9매씩 총 1,436매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우리구 도로 전체를 도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공용 현수막이 앞장서서 구 경관을 해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현수막이나 포스터를 통한 홍보방법 보다는 SNS를 통한 방법이나 이메일 발송 등의 홍보방법을 요구했다.

이어 유 의원은 불법전단지의 경우 “거리는 온통 청색테이프로 병풍을 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노인일자리 참여로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도입, 불법전단지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추적관리, 특별단속반 편성 등을 요구했다.

동북일보 4면

5분 자유발언

불법 광고물과 불법 전단지의 폐해 지적

유인애 의원

(새누리/번1·2동, 수유2·3동)

유인애 의원은 불법 광고물과 불법 전단지의 폐해를 지적하고 올바른 옥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와 상습적인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근절활동을 주문하고, 공공용 현수막도 지나치게 많아 경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새로운 홍보방법을 모색할 것을 집행부에 건의했다.

또한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물건 적치 등으로 거리 미관을 훼손하고 보행인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단속이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아름다운 경관을 훼손하고 교통 불편이 있으며 담당부서의 책임 있는 대응이 있어야 하며, “2014년도 구에서 현수막 제작을 위해 7백5십6만2천 원이라는 예산을 사

용하였다” 며 도로 전체를 도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면서, 구에서는 현수막이 아니면 구의 행정 마비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현수막이나 포스터로 홍보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다” 고 주장하였다. 이어 불법 광고물과 전단지를 좀 더 단속하여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고 보기 민망한 전단지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 하였다.

아름다운 강북구의 도시경관과 주민들의 안전 및 교통 불편이 없기 위해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서면 답변을 달라고 요청하였다. (박은주 기자 je1718@naver.com)

●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5분자유발언

불법현수막·공공용 현수막·불법전단지 폐해 지적



유인애 의원(수유 2,3동 번1,2동)은 지난 20일 열린 제1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불법광고물 근절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펼쳤다.

유 의원은 먼저 불법현수막의 경우 “경관을 해치고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보행인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라며 불법현수막이 난무하고 근절되지 않는 것은 담당부서의 책임감 부재에서 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올바른 옥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계도활동과 더불어 주말 등 사각시간대에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광고물을 근절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해 2만5,220건을 정비하

고 287건에 대해 총 7,76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던 2014년도 현수막 정비 실태를 밝히기도 했다.

이어 유 의원은 공공용 현수막의 경우 지난해 7,500여만원의 예산을 쓰고 문화체육과의 경우 무려 228매를 제작하는 등 구에서는 1일 약3.9매씩 총 1,436매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우리구 도로 전체를 도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공용 현수막이 앞장서서 구 경관을 해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현수막이나 포스터를 통한 홍보방법 보다는 SNS를 통한 방법이나 이메일 발송 등의 홍보방법을 요구했다.

이어 유 의원은 불법전단지의 경우 “거리는 온통 청색데이프로 병풍을 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노인일자리 참여로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도입, 불법전단지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추적관리, 특별단속반 편성 등을 요구했다.